

지혜로움을 보여준 지장샘



지장샘에는 제주의 수맥을 끊고 다닌 호종단의 마수를 지혜롭게 이겨낸 전설이 전해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관을 헤쳐나온 지장샘은 여러 위기 속에서도 마을의 역사를 담담히 이어온 옛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준다.



지장샘로 | 서귀포시 동흥동 1585 ~ 동흥동 2151(약 3.5km)

분토왓로 | 서귀포시 서흥동 1990-3 ~ 서흥동 2521-4(약 2.9km)

현청로 | 서귀포시 서흥동 1635-1 ~ 서흥동 149-4(약 0.7km)

당동산로 | 서귀포시 서흥동 1752-2 ~ 서흥동 2208-2(약 1.3km)

지장샘로 | 지장샘

지장샘로는 인근에 지혜로움을 보여준 지장샘을 의미하는 길이다. 지장샘은 제주의 수맥을 끊고 다녔다는 호종단이 거쳐갔다는 물이다. 수맥이 끊겨버린 다른 곳들과 달리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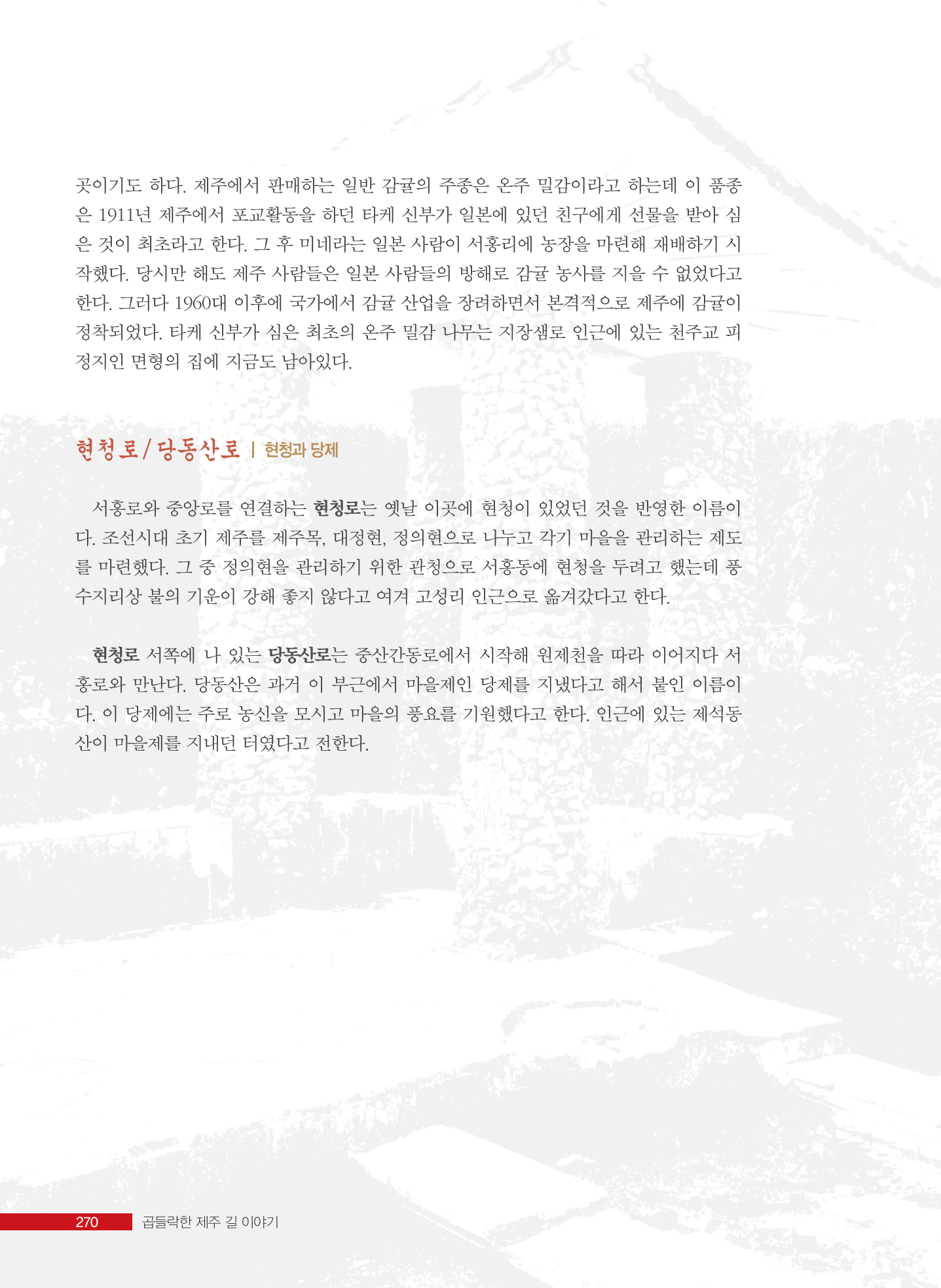
호종단은 제주의 동쪽 종달리로 상륙을 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맥을 끊고 다녔다. 어느 날 서흥동의 마을에서 한 농부가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백발의 노인이 다가오더니 지장샘의 물을 떠다가 소의 안장에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농부는 자신의 점심 그릇에 물을 떠서 안장에다 숨겨 놓았다. 그랬더니 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호종단이 나타나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농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모르는 물이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호종단이 데리고 온 개가 자꾸 노인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농부는 안장에 넣어둔 점심을 지키는 척하며 개를 쫓아버렸다. 결국 호종단은 행기물을 찾지 못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술서가 잘못됐다고 찢어버리고 가버렸다. 호종단이 사라지자 농부는 지장샘에 가서 말라버린 샘터에 물을 부어주었다. 그러자 샘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노인은 지장샘의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장샘은 호종단도 끊지 못한 물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지장샘의 이야기는 토산리의 거센새미와 제주시 영평동 행기물에서도 똑같이 전해 오고 있다. 모두 호종단이 자신의 마을의 수맥만은 끊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을의 물이 그만큼 뛰어난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호종단을 이겨낸 지장샘에는 오늘도 잔잔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지장샘

분토왓로 | 분토왓

분토왓로는 현청로에서 갈라져 나와 생수천과 서흥천을 따라 이어지다 서흥로와 만나는 길이다. 이 길은 주변 지역이 동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분지처럼 보이는 밭이라는 뜻의 분토왓이란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말을 기르던 곳이라 말똥이 많이 쌓였던 밭(糞土田)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분토왓 주변 지역은 제주 감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판매하는 일반 감귤의 주종은 온주 밀감이라고 하는데 이 품종은 1911년 제주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타케 신부가 일본에 있던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 심은 것이 최초라고 한다. 그 후 미네라는 일본 사람이 서홍리에 농장을 마련해 재배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제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방해로 감귤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1960대 이후에 국가에서 감귤 산업을 장려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에 감귤이 정착되었다. 타케 신부가 심은 최초의 온주 밀감 나무는 지장샘로 인근에 있는 천주교 피정지인 면형의 집에 지금도 남아있다.

현청로/당동산로 | 현청과 당제

서홍로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현청로**는 옛날 이곳에 현청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이름이다. 조선시대 초기 제주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나누고 각기 마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 중 정의현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으로 서홍동에 현청을 두려고 했는데 풍수지리상 불의 기운이 강해 좋지 않다고 여겨 고성리 인근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현청로 서쪽에 나 있는 **당동산로**는 중산간동로에서 시작해 원제천을 따라 이어지다 서홍로와 만난다. 당동산은 과거 이 부근에서 마을제인 당제를 지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 당제에는 주로 농신을 모시고 마을의 풍요를 기원했다고 한다. 인근에 있는 제석동산이 마을제를 지내던 터였다고 전한다.